

#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 - 중국 핵무기 폐일 세이프 대화

2024년 10월 11일~13일 중국 베이징

## 회의 요약

### 개요

»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전직 미국 및 아시아 관리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현직 및 전직 중국 관리 및 전문가들을 만나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는 핵무기의 무단 사용, 우발적 사용 또는 실수로 인한 사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핵무기 폐일 세이프(Nuclear Fail-Safe)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회의는 그랜드뷰 연구소(Grandview Institution)가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와 핵 위협 이니셔티브(Nuclear Threat Initiative)의 지원을 받아 주최했다.

» 목적은 일방적인 내부 핵무기 폐일 세이프 검토 및 조치와, 양자 및 다자(UN 상임이사국 포함) 토론 및 이니셔티브를 위한 의제 항목으로서 핵무기 폐일 세이프의 잠재력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참석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검토와 유사한 개념의 '독립적인' 핵무기 폐일 세이프 검토의 목적과 장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모든 핵 보유국이 이러한 검토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이러한 검토는 협상, 조약 또는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결과나 조치의 공유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전적으로 각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 참석자들은 이번 대화를 환영했으며, 일방적인 핵무기 폐일 세이프 검토라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또한 현재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UN 상임이사국 채널에서 핵무기 폐일 세이프가 잠재적인 대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표명했다.

### 참석자 동의 사항

» 핵무기 폐일 세이프는 모든 핵 보유국에게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방적 포지티브섬(positive sum)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다.

» "폐일 세이프(fail-safe)"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핵무기 폐일 세이프가 핵무기나 무기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용어는 실제로 핵무기의 무단 사용, 우발적 사용 또는 실수로 인한 사용을 방지하는 안전 조치를 의미한다.

» '폐일 세이프'라는 용어는 중국어로 쉽게 번역되지 않는다. 핵무기 폐일 세이프의 의도와 이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간결한 정의는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 참석자들은 폐일 세이프 정의를 개발하고 비교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중국어 정의는 학문적인 언어나 이론보다는 국가의 군사 용어에서 도출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군사용어는 더 정확하고 간결한 경향이 있어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군사 지도자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논의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核失控安全 (핵실공안전) (“핵무기 통제 상실에 대한 안전 확보”)
- 核武器事故后果管理 (핵무기사고후과관리) (“핵무기 사고 결과 관리”)
- 预防核失控 (예방핵실공) (“핵 관리 부실 예방 또는 핵 [무기/시설 등] 통제 상실 예방”)
- 非刻意核使用安全 (비각의핵사용안전) (“비의도적 핵 사용 안전 확보”)

» 모든 핵 보유국의 독립적이고 내부적인 일방적 핵무기 폐일 세이프 검토는 안전 및 위험 감소를 위한 귀중한 도구다. 이러한 검토에는 이 문제에 경험이 있는 퇴역한 국가 핵 과학자, 군 관계자 및 민간 국방 관계자를 활용할 수 있다. 검토는 어떠한 외국의 사찰이나 검증 없이, 국가의 핵무기 복원력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개선 사항을 평가하고 권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핵무기 폐일 세이프는 핵무기의 수량이 아닌 핵 위험 감소에 관한 것이다.

» 대부분의 핵 보유국이 핵 현대화 프로그램(신기술, 조기 경보, 지휘 및 통제, 핵 시스템 통합을 포함하며, 이 중 일부는 재래식 전력과 얽혀 있음)을 추진하고 사이버 위협 및 인공지능(AI)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핵무기 폐일 세이프의 필요성은 현재 더욱 시급하다. 이 모든 역학관계가 결합되어 지도자들의 핵 결정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다. 폐일 세이프 조치는 결정 시간을 확보하고 사고, 오판, 또는 치명적 실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 모든 핵 보유국은 고유한 핵 전력, 정책 및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국의 핵무기 폐일 세이프 검토 또한 고유한 범위와 초점을 가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폐일 세이프 검토는 핵 정책 및 전력 태세, 절차, 지휘통제 과정 및 시스템, 그리고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의 설계를 다룰 수 있다. 베이징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조치에는 '핵 선제 불사용 (no first use)' 정책, 탄도 미사일 발사 후 파괴 메커니즘, 인력 신뢰성 프로그램, 그리고 지도자의 결정 시간을 늘리기 위한 정책 및 기술적 조치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협력 조치로, 예를 들어 참여국 그룹에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가별 조기 경보 데이터를 일방적, 양자적 또는 다자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 핵무기 폐일 세이프(Nuclear Fail-Safe)는 미-중 양자 대화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며, 다른 핵 보유국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미-중 양국 관계 및 상호 신뢰의 전반적인 개선은 핵무기 폐일 세이프 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관계의 이견이 핵무기 폐일 세이프 대화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 미국은 핵무기 폐일 세이프(Nuclear Fail-Safe) 관련 경험과 함께 두 차례 진행한 독립적 검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1990~1992년에 실시한 검토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검토가 바로 그것이다.

» 모든 핵 보유국 정부가 핵무기 폐일 세이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도록 장려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각국 정부의 전문가, 관리 및 지도자들은 핵무기 폐일 세이프 검토의 개념과 이점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문가 및 정부 차원 대화는 핵확산금지조약(NPT) N5(UN 상임이사국으로도 불림) 외부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핵보유국들로 확대될 수 있다.

» 핵무기 폐일 세이프는 N5/UN 상임이사국 대화의 적절한 주제가 될 것이며, 현재 중국이 이 대화의 순환 의장국을 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전장치 주제는 UN 상임이사국이 합의한 포괄적 의제인 전략적 위험 감소와 핵 위험 저감에 포함된다.

N5/UN 상임이사국의 핵무기 폐일 세이프 대화는 정부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UN 상임이사국 전문가급 트랙과 차세대 트랙을 포함한 반관반민 및 비정부 논의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결과물로는 용어집, 원칙, 모범 사례 또는 핵 안전장치에 관한 공동 성명 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비핵보유국들과도 논의될 수 있으며, 2026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더욱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결론

» 이번 대화는 매우 생산적이었다. 정부, 반관반민, 비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미중 간 핵무기 폐일 세이프에 관한 양자 대화는 다른 현안들의 진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폐일 세이프 검토만으로도 핵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 주제에 관한 미중 대화는 두 강대국이 생산적으로 소통하고 비록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핵 위험 감소를 위한 건설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른 핵보유국들도 같은 길을 걷도록 독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